수소경제 선도하는 산업생태계 구축

연료전지 보급 늘리고 가스터빈 상용화
전국 연결 수소 주배관 건설 장기 계획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공기 호흡 가능

정부가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수소경제를 선도할 산업생태계를 구축한다. 2040년까지 수소차를 620만대 생산해 세계 시장점유율 1위를 달성하고 발전용 연료전지를 15GW 생산하겠다는 목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7일 오후 울산시청에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회를 열고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며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핵심은 수소 모빌리티(mobility)다. 2018년 1800여대에 불과한 수소승용차 생산량을 2022년 8만1000여대(내수 6만5000여대), 2040년 620만여대(290만여대)까지 늘린다. 대중교통도 수소화한다. 수소버스는 2040년까지 4만여대, 수소택시는 8만여대, 트럭은 3만여대 보급한다. 수소충전소는 전국에 1200개소 구축하기로 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연료전지를 적극적으로 생산한다. 2040년까지 발전용 연료전지 15GW(내수 8GW), 가정·건물용 2.1GW(94만가구용) 보급한다.

발전용의 경우 상반기 중 연료전지 전용 LNG 요금제를 신설하고 가정·건물용은 설치장소와 사용유형별 특징을 고려해 다양한 모델을 출시하기로 했다. 2030년부터는 대규모 발전이 쉬운 수소가스터빈을 상용화할 예정이다. 이에 필요한 수소는 1kg당 3000원에 연 526만t까지 공급한다. 수전해와 해외생산 수소 등을 활용해 그린수소 산유국으로 도약을 꾀한다. 기체·액체·액상·고체 등 저장방식을 다양화하고 수소 수요 증가 추세에 발맞춰 튜브트레일러 및 파이프라인 사용을 늘린다.

장기적으로는 전국을 연결하는 수소 주배관을 건설할 예정이다.

수소 생산부터 활용까지 전(全) 주기에 걸쳐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안전기준을 국제 수준에 맞게 제·개정하는 등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2030년부터 15건 이상의 국제표준을 제안하고 국제표준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안전관리 및 핵심기술 개발 전문인력도 양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소가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고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주도권 선점에 주력하고 있다.

휘발유·경유 등 내연기관차가 수소차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완성차 시장이 열리고 관련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다. 세계 자동차 시장 규모(2017년 기준)는 2조달러로 이중 10%인 2000억달러 만큼만 수소차로 전환된다고 가정해도 디스플레이 시장(1251억달러)의 약 1.5배, 반도체 시장(4190억달러)의 절반에 이른다.

연료전지 발전과 열 공급 확대로 관련 부품업체가 늘어나고 수소 생산·운송 등 새로운 인프라 시장도 열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는 대기오염과 관련해서도 수소는 장점이 많다. 수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미세먼지 정화 능력이 우수해 친환경 에너지 보급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정부는 수소차 보급이 늘어나면 국민들이 미세먼지가 없는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정부는 작년 8월 수소경제를 3대 전략투자 분야로 선정한 뒤 민간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여하는 수소경제추진위를 결성, 3개월가량 로드맵을 준비했다. 이를 1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해 최종안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수소경제 활성화로 인해 2040년까지 연 43조원가량의 부가가치가 발생하고 약 42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영농기 대비 농업용수 확보 총력

농어촌공사 전북본부, 다목적농촌용수사업 12개 지구 추진

지난해 선제적인 물관리로 지역민들의 안전영농을 책임졌던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박종만)가 올해도 연초부터 농업용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전북본부 관리 417개 저수지의 평균저수율은 약 88.1%로, 평년보다 18.3% 높고 가뭄이 극심했던 작년보다는 25.6% 높아 올해 영농을 위한 저수량 확보는 충분하지만, 시설보수·보강 등으로 인한 저수지 9개소는 50%이하의 저수율로 영농을 위한 농업용수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지속되는 가뭄을 극복하기 위한 농업용수 확보 차원에서 다목적농촌용수사업 12개 지구를 올해 추진 계획으로 국지성 호우로 인한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배수개선사업도 20개 지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노후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을 통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특히,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지진 피해 예방을 위해 2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익산 왕궁제 등 3개소 내진보강공사를 착공하는 등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총 50지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박종만 농어촌公 전북본부장은 "사업추진의 당위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재해예방, 선제적 가뭄대책, 안전영농, 기상이변에 대비하는 사업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전북지역이 가장 편리하고 재해에 안전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물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한우 선제적 수급조절 통한 경영안정 모색

전국한우협회 전북도지회, 익산서 안정화 위한 심포지엄 개최

전국한우협회 전북도지회(회장 정윤섭)는 오는 22일 익산 솜리문화예술회관 중공연장에서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심포지엄은 한우산업 경영안정화 주제로 열리며 제1주제는 전상곤 경상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의 '한우경영 안정화를 위한 제도 및 대책'(송아지 생산안정제 개정, 비육우가격안정제도입), 제2주제는 권기찬 발해동물약품 대표의 '수급조절을 통한 한우경영 안정화방안'(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을 위한 사양관리)으로 진행한다.

특히, 종합토론은 전북대학교 동물생명공학과 이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김홍길 전국한우협회 회장, 이근수 (사)농어업포럼 축산분과 한우위원장, 송태복 농림축산식품부 과장, 이성재 전북도청 축산과 과장, 권응기 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 박사가 참여한다.

한편, 정윤섭 전북도지회장은 "한우산업의 불안이 가중되는 300만두 시대, 한우인들 스스로 산업의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심포지엄을 마련했다"면서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협, '안전먹거리' 설 명절 대비 식품 점검

전북농협 유재도본부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협 하나로마트 안전 먹거리, 이미지 제고를 위해 17일 남원원협(조합장 방금원) 하나로마트를 방문해 설 제수용품 원산지 및 유통기한 관리 등 식품안전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특히, 유 본부장은 식품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당부했고 농촌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설 명절 선물로 로컬푸드·6차산업 가공제품 등 우리 농산물을 적극 애용해 달라고 호소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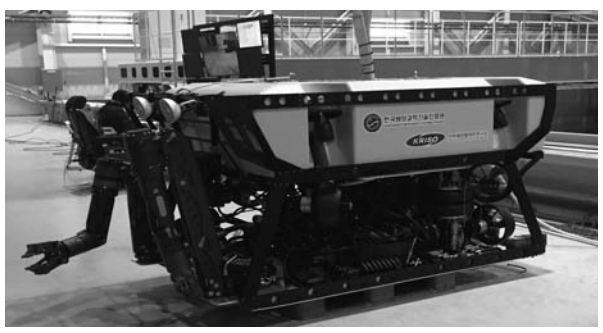
또한, 전북농협은 식품안전 점검을 통해 농협 판매장의 안전 먹거리 이미지 정착과 설 명절을 앞두고 외부기관 안전 점검에 대비차 지난 10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전북 관내 하나로마트 등 29개소를 대상으로 경제지주 전 직원을 동원하여 식품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한편, 유재도 전북농협본부장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안전하고 품질 좋은 우리 농축산물인 과일 및 축산물 세트를 착한 가격으로 공급하여 농가소득 5,000만원시대가 좀 더 앞 당겨질 수 있도록 농산물 판매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해양산업 현장 곳곳에서 더 많은 활약을"

국내 기술개발 수중건설로봇 상용화 눈앞… 해외장비 임대 비용 절감



국내 기술로 개발된 수중건설로봇.

국내 기술로 개발된 수중건설로봇이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원장 김웅서)은 17일 포항 수중로봇복합실증센터에서 해수부 연구개발 사업인 '수중건설로봇 연구개발(R&D)사업' 성과보고회와 기술이전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서는 그간의 수중건설로봇 연구개발 성과를 확인하고 국책연구기관들이 국산기술로 개발한 수중건설로봇 3종 기술을 민간기업에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수중건설로봇이 현장에 보급되면 연간 100억원 이상의 해외장비 임대 비용이 절감된다. 또 2030년 세계 무인수중로봇시장 점유율 5%를 달성할 경우 해외시장 수출 등으로 연간 1250억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개발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저자원 발굴을 위한 해양플랜트 구축, 해양 에너지 개발을 위한 구조물 건설 등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500~2500m 깊이의 바닷속에서 시설 매설, 해저 지면 고르기 등 수중작업을 장시간 수행할 수 있는 장비에 대한 수요도 급증했다.

해수부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수중건설로봇 제작 기술의 국산화를 위해 2013년부터 '해양개발용 수중건설로봇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2016년에 수중건설로봇 URI-L과 URI-T의 시제품을 개발한 데 이어 2017년에는 URI-R 시제품을 개발했다. 지난해 9월2일부터 10월29일까지 동해 수심 500m 해역에서 수중건설로봇 3종의 실증실험을 성공했다.

특히 수중건설로봇의 로봇 팔, 압반파쇄 장치, 수중카메라, 자동화 항법 기술 등에 대해 실해역 시험에 성공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력을 입증했다.

경작업용 수중건설로봇 'URI-L'은 최대 2500m 수심에서 수중환경 조사나 수중 구조물 시공 및 작업 지원, 유지 보수 등 경작업이 가능하다. 중작업용 수중건설로봇 'URI-T'는 최대 2500m 수심에서 해저 케이블을 매설하거나 중량이 큰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다.

/뉴시스

농협은행, 사회초년생 위한 '새내기직장인대출' 출시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은 직장을 입사해 대출이 어려운 사회초년생을 위한 신용대출상품인 'NH새내기직장인대출'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NH새내기직장인대출'은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소득자 중 연소득 2,000만원 이상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를 대상하며 대출한도는 최대 3,000만원이다.

아울러, 대출금리는 거래실적에 따라 최대 0.8%p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고 최저 3.43% (2019년 1월 16일 기준)까지 가능하다.

한편, 대출은 신청인 본인이 전국의 농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김영태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